

勞 動 經 濟 論 集
第20卷(2), 1997. 12 pp.171~202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限界産業의 海外企業進出과 外國人力導入의 效率性 比較*

朴 來 榮**

< 目 次 >

| | |
|---------------------|------------------|
| I. 問題意識 | 效果分析을 위한 理論的 接近 |
| II. 海外企業進出의 推移와 實態 | V. 限界産業의 海外企業進出과 |
| III. 外國人力의 導入과 活用實態 | 外國人力活用の 效果比較 |
| IV. 海外企業進出과 外國人力活用の | VI. 要約과 結論 |

I. 問題意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무제한공급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으로 산업화과정에 진입하였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의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경공업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획득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수출자유지역 등 공업단지를 형성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해외에 취업하여 외화를 벌어들였다.

*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지원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동사용적인 경공업제품의 수출과 해외취업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자본을 형성하였던 우리 경제의 개발전략은 국내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되면서 산업화를 진전시켰다.

무제한공급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있은 후 제1차 전환기를 맞게 되고 제한공급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노동력의 공급은 전반적인 과잉 속에서도 부분적인 부족을 느끼게 하였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던 일부 노동사용적 경공업부문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쇠퇴하거나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군사 정부에 의한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 등으로 노동사용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중동사태 이후 우리 건설업 등의 해외진출에 동반하여 노동력의 해외취업도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외국자본 도입과 노동자의 해외취업을 바탕으로 이끌어 온 초기 산업화과정의 고도경제성장은 1987년 여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제2차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한계에 부딪힌다. 억제된 임금상승의 고삐는 노사관계의 전환에 의하여 풀리게 되고 격렬한 노사분규의 지속은 생산성 정체를 불러왔다. 기업의 노동비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은 노동비용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노동시장 사정 역시 크게 바뀌었다. 중화학공업이나 서비스업 등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임금·대기업부문에서는 과잉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노동사용적인 저임금·중소기업부문에서는 부족인력의 충원조차 어렵게 되는 이중구조가 심화되었다. 국내외의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력의 해외취업은 격감한 대신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 또는 불법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화로 통칭되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방화와 경쟁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비단 임금수준만이 아니라 이자율, 지대 등 각종 생산비용의 차이가 국제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표출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없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산업(marginal industry)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계산업은 종래 흔히 사양산업(sun-set industry)이라고 불리던 것과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쇠퇴하는 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한다면 비단 장기 쇠퇴의 사양산업만이 아니라 개방화와 경쟁화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운 모든 산업을 한계산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 한계산업들은 국내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는 국내에 비하여 임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해외기업진출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주로 노동비용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노동비용 상승을 피해 보려는 기업의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계산업의 개별기업이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는 한계산업의 해외기업진출이나 외국인력 활용 가운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에 정책의 비중을 더 두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海外企業進出의 推移와 實態

1. 海外企業進出의 國際的 推移

국제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장기간 국가 사이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대중을 이루었으나 19세기 후반 유럽국가들의 식민지가 확장되면서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식민지에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커졌다. 금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졌고 특히 자본이동과 함께 해외기업진출이 크게 증대되었다.¹⁾

해외기업진출은 주식투자나 원조 및 차관 공여 등 단순한 자본만의 이동과는 달리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 등을 동반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있다. 단독투자 또는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있을 수 있으며,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와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 목적도 다양하여 시장지향형, 자원 및 원자재지향형, 기술지향형, 노동력지향형과 복합목적형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투자 목적에 의하여 투자형태도 복잡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투자 목적과 투자 형태를 유형화하기 어려운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다.

1) R. E. Caves, J. A. Frankel and R. W. Jones(1996) pp.199~205 참조.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른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MNE) 또는 국가간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TNC)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교역의 확대와 함께 그 양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²⁾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화의 추세가 가속되고 특히 1995년 1월부터 WTO체제가 가동되면서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함께 자본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억제해 오던 각종 장벽들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의 활동공간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로 확대되었고 정보화의 진전과 결합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요소가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으로부터 공급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여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가 다시 세계의 여러 나라에 판매되기에 이르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국 기업에서 자본이 제공되고 B국 기업에서 기술을 공급받아 C국의 노동력으로 생산된 부품이 D국 기업에 의하여 조립되어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형태를 두고 P. Doringe와 M. Piore는 생산경로(production channels)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G. Gereffi는 이를 세계상품연결(global commodity chains:GCC)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세계상품연결의 네 가지 차원을 중요시한다. ① 다양한 산업에 걸친 상품, 서비스 및 자원의 부가가치연결, ② 다수의 기업이 국경에 관계없이 참여하는 생산과 판매의 지리적 확산, ③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형성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에 대한 지배구조와 권력관계, ④ 연결고리 내의 각 단계별 과정에 관한 제도적 틀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차원 가운데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세계상품연결의 지배구조이다. 세계상품연결은 근본적으로 국제적인 산업연관관계(linkage)에 바탕을 둔다고 본다. 그중에 생산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에 의하여 지배되는 형태를 생산자지배 상품연결(producer driven commodity chains)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무역이나 판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에 의하여 지배되는 형태를 구매자지배 상품연결(buyer driven commodity chains)이라고 부른다.

생산자지배 상품연결은 주로 대량생산의 제조업자가 생산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여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데 비하여 구매자지배 상품연결은 산업조직의 유연적 특화를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둘다 저비용·고부가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생산자지배와 구매자지배의 두 가지 상품연결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기본적인 생산 및 무역의 능력을 갖춘 신흥공업국의 중간자(middle man)가 있어서 삼각관계의 제조과정(triangle manufacturing)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라고 말

2) J. H. Dunning(1993) pp.14~15.

한다.³⁾

D. Campbell과 A. Parisotte는 이처럼 노동, 자본, 자원 및 기술 등 생산요소와 중간재가 각각 상이한 국가에 공급되고 이들 생산요소가 중간재들을 활용하여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다시 세계의 여러 나라에 판매하는 최근의 국제적 기업연결 관계를 세계상품연결(GCC)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세계부가가치연결(global value chains:GVC)로 부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제적 기업연결은 단순한 생산과정의 연결에 그치지 않고 요소공급자,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수송, 금융, 정보 등의 제공자로 이어지는 산업 및 공간의 세계적 연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

상이한 다수 국가의 다수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생산요소, 중간재, 완제품의 공급이나 생산에 참여하고 다시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분야에서 다수 기업들이 수송이나 판매에 참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나라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value added)가 어느 국가에 가장 많이 귀속되는가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볼 때 이러한 연결관계를 세계부가가치연결(GVC)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2.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規模와 水準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장기간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무역업을 시장지향형 투자형태를 취하면서 선진국의 주요도시에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정도이었으나 점차 지사 또는 지점으로 승격하기도 하였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업과 건설업으로부터 광업, 임업 등 자원지향형 투자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수입규제와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면서 조립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의 해외기업진출이 활발해졌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동아시아 지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노동력지향형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대한 기술지향형 투자도 출현하고 있다.

이 시기는 중국의 개방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저개발국도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 자원, 노동력지향형의 각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급증시킨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크

3) Gary Gereffi(1995).

4) D. Campbell and A. Parisotto(1995).

게 작용하였다. 그 하나는 이 시기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이며, 다른 하나는 1987년 여름 노사분규의 폭발이 있는 후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임금, 지대 등 비용요인의 상승이었다. 몇 년간 지속된 국제수지의 흑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여력을 형성해 주었고 노사분규가 임금인상 등 노동비용의 상승은 해외기업진출의 동기를 자극한 것이다.5)

<표 1>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의 추이(투자잔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 1985 | 1990 | 1995 | 1996 |
|-------------|------------------|--------------------|---------------------|---------------------|
| 광업 | 172.1 (37.1) | 446.7 (19.4) | 701.0 (6.9) | 900.3 (6.5) |
| 임업 | 62.9 (13.6) | 77.6 (3.4) | 78.1 (0.8) | 83.9 (0.6) |
| 수산업 | 6.2 (1.3) | 87.8 (3.8) | 89.8 (0.9) | 90.0 (0.7) |
| 제조업 | 92.8 (20.1) | 1,061.4 (46.1) | 6,013.2 (58.8) | 7,723.3 (56.1) |
| 음식료품 | 5.0 | 80.2 | 231.3 | 350.4 |
| 섬유·의복 | 3.4 | 150.3 | 730.0 | 949.2 |
| 신발·가죽 | 2.3 | 49.6 | 271.9 | 321.9 |
| 목재·가구 | 6.9 | 27.0 | 150.2 | 160.3 |
| 종이·인쇄 | 1.4 | 17.0 | 96.0 | 126.9 |
| 석유·화학 | 18.5 | 129.1 | 531.9 | 657.9 |
| 비금속 | 29.3 | 42.6 | 365.1 | 397.9 |
| 1차금속 | 4.5 | 247.8 | 546.0 | 703.1 |
|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 15.7 | 279.9 | 2,660.3 | 3,466.6 |
| 기타제조업 | 5.8 | 37.9 | 430.4 | 589.0 |
| 건설업 | 36.0 (7.8) | 51.9 (2.3) | 211.3 (2.1) | 527.7 (3.8) |
| 운수·보관업 | 2.5 (0.5) | 6.7 (0.3) | 76.7 (0.7) | 90.9 (0.7) |
| 무역업 | 71.8 (15.6) | 410.3 (17.8) | 1,991.9 (19.5) | 2,819.0 (20.5) |
| 기타 | 17.7 (3.8) | 155.3 (6.8) | 1,062.9 (10.4) | 1,521.8 (11.1) |
| 전체 | 461.0 (100.0) | 2,300.1 (100.0) | 10,226.9 (100.0) | 13,757.0 (100.0) |

주 : () 내는 당해연도 투자잔액 중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5) 오호일·박종운(1997)에서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1996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1.8억 달러이었고 이 해 말 현재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137.6억 달러에 이른다. 이 잔액 수준은 1985년말 461백만 달러의 무려 30배, 그리고 1990년 말의 23억 달러의 6배에 달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구성도 현저하게 바뀌었다. 1980년에는 무역업, 건설업, 임업이 각각 21.9%, 19.4%, 1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는 제조업이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광업과 무역업이 각각 19.4%와 17.8%를 차지한 대

<표 2> 지역별 · 업종별 해외직접투자(1996년말 투자잔액 기준)

(단위 : 백만달러)

| | 동남아 | 북미 | 유럽 | 전세계 |
|---------------|--------------------|--------------------|--------------------|---------------------|
| 광업 | 344.2 (5.7) | 119.1 (2.80) | 89.4 (4.2) | 900.3 (6.5) |
| 제조업 | 4,519.1 (74.6) | 1,597.6 (36.9) | 1,128.8 (53.6) | 7,723.3 (56.1) |
| (섬유 · 의복) | 613.6 <13.6> | 51.3 <3.2> | 97.5 <8.6> | 949.2 <12.3> |
| (신발 · 가죽) | 282.6 <6.3> | 7.6 <0.5> | 7.8 <0.7> | 321.9 <4.2> |
| (석유 · 화학) | 488.6 <10.8> | 53.1 <3.3> | 68.6 <6.1> | 657.9 <8.5> |
| (1 차 금 속) | 113.7 <2.5> | 528.9 <33.1> | 28.8 <2.6> | 703.1 <9.1> |
|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 1,773.4 <39.2> | 712.3 <44.6> | 847.2 <75.1> | 3,466.6 <44.9> |
| 건설업 | 326.7 (5.4) | 125.9 (2.9) | 12.3 (0.6) | 527.7 (3.8) |
| 운수 · 보관업 | 61.7 (1.0) | 14.8 (0.3) | 2.9 (0.1) | 90.9 (0.7) |
| 무역업 | 389.9 (6.4) | 1,717.0 (39.7) | 619.7 (29.5) | 2,819.0 (20.5) |
| 기 타 | 413.8 (6.9) | 752.6 (17.4) | 251.0 (12.0) | 1,695.7 (12.3) |
| 전 체 | 6,055.4 (100.0) | 4,327.0 (100.0) | 2,104.2 (100.0) | 13,757.0 (100.0) |

주 : ()내는 당해 지역 투자잔액 중 비중(%).

< >내는 제조업 투자잔액 중 각 업종의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7. 5, 28쪽에서 전체.

신 건설업과 임업이 각각 2.3%와 3.4%로 뚜렷한 비중의 저하를 보였다. 1996년에는 제조업이 56.1%로 절반을 크게 넘어섰고 무역업이 20.5%를 유지하였으나 광업은 6.5%로 축소되었으며, 기타로 분류된 각종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11.1%로 크게 증대되었다.

제조업 가운데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크게 비중이 증대된 업종은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로서 1985년의 16.9%에서 1996년에는 44.9%로 확대되었다. 그 다음으로 섬유·의복이 3.7%에서 12.3%로 커졌다. 그 외에 신발·가죽과 1차금속 등이 다소 커진 편에 속하며, 석유·화학을 위시하여 비금속, 목재·가구 및 음식료품의 업종에서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6년말 현재 투자건수로 보면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와 섬유·의복이 각각 22.8%와 21.6%로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5년 63.7%를 차지하던 대선진국 투자가 1996년에는 45.8%로 축소된 반면, 개발도상국 투자는 36.3%에서 54.2%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에 투자비중이 축소된 지역은 대양주, 중동, 미주 및 아프리카 등이며, 비중이 증대된 지역은 동남아와 유럽이다. 미주 지역에 대한 투자는 국제수지의 흑자가 유지되던 1988~93년 사이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증대되기도 했으나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다시 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동구 지역에 대한 투자증가가 현저하다.

투자규모로 보면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투자의 비중이 1980년의 7.5%에서 1990년에는 52.1%, 그리고 1996년에는 61.2%로 엄청나게 커진 반면, 1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의 비중은 26.7%에서 12.5%로 다시 9.8%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투자건수로 보면 투자규모의 비중변화가 그렇게 엄청나거나 현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1980년에 1천만 달러 초과와 대형투자가 0.3%이던 것이 1990년에는 2.7%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지만 1996년에도 3.3%에 지나지 않는 상태이다. 1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건수 비중도 1980년, 1990년, 1996년에 각각 88.2%, 73.0%, 76.8%로 바뀌고 있어서 1990년대에도 소규모 투자가 계속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건당 투자잔액은 1990년의 1.9백만 달러가 1996년에는 2.1백만 달러로 늘어난 정도에 그치고 있다.⁶⁾

<표 3>은 최근 조사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응답 중 원자재 및 기술지향형은 각각 1.9%와 3.7%에 지나지 않으며, 시장지향형이 37.0%이고 노동력지향형이 40.7%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력지향형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유럽 지역은

6) 김영찬·김정규(1997. 5.), 29쪽.

시장확보와 무역장벽 타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아시아지역 진출은 주로 임금, 지대, 물류비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며 그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임금상승을 이유로 한 노동력지향형이다. 중남미의 경우는 시장지향형과 노동력지향형이 반씩 차지한다. 결국 국내에서 임금, 지대, 물류비 등 부담요인이 과중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의 산업들은 주로 동남아와 중남미 등 저개발국으로 진출하고 시장확보나 무역장벽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지향형 산업들은 주로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으로 진출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지향형과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지향형의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해외투자의 동기

| | 아시아 | 유럽 | 중남미(멕시코) |
|--------------------|-----|----|----------|
| 국내임금상승 | 57 | 4 | 5 |
| 지가상승 | 10 | - | - |
| 물류비용상승 | 10 | - | - |
| 금리상승 | 6 | 1 | - |
| 현지 판매시장 확보 | 16 | 20 | 5 |
| 무역장벽(관세·수입규제 등) 회피 | 12 | 17 | - |
| 원자재확보 곤란 | 2 | 1 | - |
| 기술이전 | 1 | 4 | 1 |

주: 조사대상업체의 복수응답에 따른 응답횟수 기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7. 4.).

3. 東아시아地域 進出企業의 實態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활동상태를 통계적 자료만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통계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은 1996년 8월에서 1997년 7월 사이에 우리나라 한계산업의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진출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및 중국에 진출해 있는 20개 제조업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4개 국에 진출한 제조업 기업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역시 노동력지향적인 한계산업의 기업들이었으나 그 외에도 시장지향형 또는 시장과 노동력을 지향한 복합목적형의 기업도 적지 아니하였다. 20개 조사기업 가운데 10개 기업이 순수한 노동력

지향형이었으며, 순수한 시장지향형은 2개,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시장 및 노동력의 복합목적형이었다.

노동력지향형 기업의 주제품은 예상대로 섬유·의류·신발·가죽업종 등 경공업과 금속·기계업종에 속하였다. 순수한 시장지향형은 제지, 전선 등 현지의 내수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고, 복합목적형 기업의 주제품은 가전제품이나 산업용 전자제품이었다.

노동력지향형 진출기업은 거의가 단독투자인 데 비해 시장지향형 또는 복합목적형 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노동력지향

<표 4> 조사된 진출기업의 개요와 한국과의 관계

| 업체 ¹⁾ | 주생산물 | 진출동기 | 투자 비율 | 사업기간 (년) | 수출/내수 비율 | 한국역수출 비율 ²⁾ (%) | 초기투자회수기간(년) |
|------------------|------------|---------|-------|----------|----------|----------------------------|-------------|
| V-1 | 전자제품·부품 | 시장·노동력 | 60 | 1 | 70/30 | 0 | 12(예상) |
| V-2 | 가죽제품 | 노동력 | 100 | 3 | 100/0 | 10 | 2 |
| V-3 | 신발 | 노동력 | 100 | 1 | 100/0 | 0 | 7(예상) |
| V-4 | 장갑 | 노동력 | 100 | 2 | 100/0 | 10 | 2 |
| V-5 | 기계부품 | 노동력 | 100 | 1 | 60/40 | 30 | 5 |
| I-1 | 방직 | 노동력(시장) | 95 | 5 | 65/35 | 35 | 7 |
| I-2 | 전자제품·부품 | 시장·노동력 | 87 | 4 | 82/12 | 10 | 10 |
| I-3 | 신발 | 노동력 | 100 | 8 | 95/5 | 10 | 7 |
| I-4 | 의류 | 노동력 | 100 | 9 | 75/25 | 0 | 5 |
| I-5 | 양식기 | 노동력 | 100 | 6 | 100/0 | 0 | 7 |
| T-1 | 전자제품·부품 | 시장·노동력 | 100 | 3 | 90/10 | 10 | 10(예상) |
| T-2 | 전자제품·부품 | 시장·노동력 | 100 | 8 | 80/20 | 40 | 12(예상) |
| T-3 | 제지 | 시장 | 64 | 4 | 0/100 | 0 | 10(예상) |
| T-4 | 인형·장난감 | 노동력 | 100 | 7 | 100/0 | 0 | 4 |
| T-5 | 양말·제사품 | 노동력(시장) | 100 | 16 | 0/100 | 0 | 7 |
| C-1 | 문구 | 시장·노동력 | 51 | 4 | 30/70 | 0 | 8(예상) |
| C-2 | 자켓 | 노동력 | 100 | 4 | 100/0 | 0 | 3 |
| C-3 | 신발(로라스케이트) | 노동력(시장) | 100 | 1 | 90/10 | 10 | 7 |
| C-4 | 스웨터 | 노동력 | 100 | 3 | 100/0 | 0 | 3 |
| C-5 | 전선 | 시장 | 55 | 1 | 0/100 | 0 | 7 |
| 전 체 평 균 | | | 90 | 4.5 | 57 | 8.3 | 6.7 |
| 노동력지향 기업의 평균 | | | 100 | 4.4 | 93 | 6.0 | 4.3 |

주: 1) V는 베트남, I는 인도네시아, T는 태국, C는 중국을 의미함.

2) 한국 역수출 비율은 총매출액 중 한국으로 수출하는 액의 비중임.

형 기업은 초기 투자의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데 비해 시장지향형 또는 복합목적형 기업의 회수 기간은 상당히 길다는 점도 또 하나의 차이이다. 노동력지향형 기업은 설비의 대부분을 한국으로부터 도입할 뿐 아니라 원·부자재의 한국 의존도도 시장지향형 또는 복합목적형보다 훨씬 높다. 노동력지향형 기업도 투자 초기에는 내수에 거의 눈을 돌리지 못하고 주로 제3국의 수출시장을 겨냥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수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현지 사업 기간이 오래된 기업 가운데 내수에 치중하는 기업도 있다. 현지 사업 기간이 긴 기업은 원·부자재의 한국 의존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지의 원·부자재 생산능력이 증진되어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거나 임금이 저렴한 국가에는 노동력지향형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국가에서는 노동력지향형 기업의 활동이 점차 불안해져서 보다 싼 임금의 국가로 다시 옮겨가는 경향도 있다. 조사대상 4개 국 가운데 산업화의 진전이 앞선 태국에서는 임금도 높아서 노동력지향형 기업은 퇴조를 보이는 대신 시장지향형 기업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태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순으로 임금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력지향형 기업이 가장 집중된 국가는 베트남이다.

조사된 4개 국 20개 기업을 단순평균했을 때 투자비율은 평균 90%, 활동 기간은 4.5년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일천함을 보여준다. 제품의 수출/내수 비율은 평균 57:43으로 시장지향형보다는 노동력지향의 성격이 다소 짙다. 이들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1,500명 수준이어서 노동사용적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신발업종의 경우 1개 기업이 9,500명을 고용하는 등 이례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 규모의 단순평균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진출기업은 국내 경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초기투자 때나 설비확장의 시기에 주로 한국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자본재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지생산활동을 위하여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현지생산품을 한국으로 역수출하기도 한다.

조사된 20개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는 비율이 평균 85.5%에 이른다. 이 비율은 거의 같은 시기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TC)가 아시아, 북미 및 유럽의 14개 국 167개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의 평균 76.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KTC 조사대상 가운데 동남아 지역 진출기업의 87%와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20개 조사기업의 원·부자재 한국 의존도는 평균 67.3%인데 이 수준은 KTC가 조

사한 167개 사 평균 61.2%나 아시아 지역의 평균 63.3%보다는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또한 조사기업의 제품 또는 부품을 한국에서 역수입하는 비율은 8.3%인데 이 역시 KTC의 167개 사 평균 4.2%보다는 훨씬 높지만 아시아 지역의 평균 8.1%와는 매우 흡사하다.⁷⁾

20개 진출기업 가운데 노동력지향형의 10개 기업만을 보면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10개 노동력지향형 기업의 투자형태는 모두 100% 단독투자이며, 수출/내수 비율도 93%로 매우 높다. 이들의 초기투자 회수 기간도 4.3년으로 매우 짧고, 평균 종업원수는 2,100명 정도로 20개 사 평균보다 많다. 그러나 수천명씩 고용하는 신발 등 업종의 대규모 기업과 몇백 명 또는 몇십 명을 고용하는 섬유·의류 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

10개 노동력지향형 기업은 한국과 매우 짙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기계·설비 등 자본재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비율과 원·부자재의 도입비율이 각각 97.0%와 81.5%로서 20개 사 평균보다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역수입 비율은 6.0%로 20개 사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

결국 노동력지향형 한계산업의 해외진출기업은 시장지향형 또는 복합목적형 기업에 비하여 제3국에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인하여 단독투자를 하되 단기에 투자자본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기업의 기계·설비를 주로 한국에서 도입하고 원·부자재도 한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한국의 역수입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는 몇가지 특징이 추출된다.

Ⅲ. 外國人力의 導入과 活用實態

1. 外國人 勞動者의 導入規模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노동력의 해외진출 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국가로 바뀌었다.

1987년 여름 이후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급상승하여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임금격차가 커짐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동기를 자극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보다 중요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7), 20~35쪽 참조.

한 요인은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함께 근로자의 3D 기피성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분야인 노동사용적 산업의 인력부족이 심화된 수요측 요인이다.⁸⁾ 이에 더하여 노동사용적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하여 뚜렷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해 온 정부의 느슨한 정책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도별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986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한 외국인의 수가 3,940명이었으며, 몇년간 그 수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여 1989년에는 5,944명에 이르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80년대 말까지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소수 외국인을 포함하더라도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수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후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급증하였으며, 1991년 10월에 마련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과 그 시행세칙이 마련된 이후부터 단순기능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유입도 급증한다.

1992년 6월 10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실시한 외국인 불법취업자 자진신고 기간중에 신고한 외국인은 총 61,126명에 달하였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취업자와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의 총수는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르렀다.⁹⁾ 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의해서만 도입되던 산업기술연수생이 1992년 하반기부터 국내의 3D업종 중소기업에도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자진신고한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 출국기한 연장이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3년 12월 연수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대상을 “주무부처의 장 또는 산업체 유관공공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로 확대하고 그 운영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맡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6년 말 현재 합법·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210,494명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교수, 회화지도 등 취업비자를 받은 합법취업자가 13,420명으로 6.3%이고 산업기술연수생이 68,020명으로 32.3%, 나머지 61.4%인 129,054명은 불법취업자이다. 불법취업자의 대종을 이루는 불법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이 전체의 38.1%이고 그 가운데 65.3%가 조선족이다. 그 이외에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네팔 등의 순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산업기술연수생은 1996년 말 현재 총 79,318명이 배정되었으나 입국 인원은 65,797명이지만 7,751명은 출국하였고, 19,834명은 이탈하여 실 연수생수는 38,212명으로 집계된다. 이탈률은 평균 30.1%이며, 중국 국적인을 위시하여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이 비교적 높은 이탈을 보이는 반면, 인도네시아인, 태국인 등이 낮은

8) 박영범(1994), 88-118쪽 참조.

9) 송병준(1993), 16쪽.

이탈을 보이고 있다.

<표 5> 외국인력 취업현황

(단위 : 명)

| | 총 계 | 취업 및 기술연수 | | | 불법체류 ³⁾ |
|------|---------|-----------|--------------------|----------------------|--------------------|
| | | 소 계 | 합법취업 ¹⁾ | 산업기술연수 ²⁾ | |
| 1991 | 44,850 | 2,973 | 2,973 | - | 41,877 |
| 1992 | 73,868 | 8,340 | 3,395 | 4,945 | 65,528 |
| 1993 | 66,919 | 21,411 | 3,767 | 8,644 | 54,508 |
| 1994 | 81,824 | 33,593 | 5,265 | 28,328 | 48,231 |
| 1995 | 128,906 | 47,040 | 8,228 | 38,812 | 81,866 |
| 1996 | 210,494 | 81,440 | 13,420 | 68,020 | 129,054 |

주: 1) 대학교수, 회화지도 등 전문·기술직종으로 취업비자 받은 자(단기취업은 제외).

2) 해외투자업체 연수생 + 중기협·수협추천 연수생.

3) 불법취업자 = 허용체류기간 경과자 + 이탈자(밀입국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관련자료」, 1997. 5.

2. 外國人 勞動者의 活用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실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는 취업하고 있는 산업·업종 및 기업체가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되고 있으나, 취업비자로 입국한 합법취업자, 이탈한 산업기술연수생 및 불법취업자에 관해서는 취업처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그동안 정부 또는 각종 연구소나 개인 연구자의 소규모 조사에 의하여 이들의 취업 및 생활실태의 단편이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¹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추천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의복, 목재·나무·종이 및 가구 등 경공업분야와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노동사용적 업종에 있어서 노동력지향형 해외진출기업이 속하는 업종과 대체로 일치한다.

연수생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기계장비와 섬유·의복으로 각각 전체의 28.9%와 28.3%를 차지하며, 연수업체당 취업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의 수는 업종별

10)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최근의 조사 결과는 강수돌(1996), 경총(1996) 등에서 볼 수 있다.

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4.1명에 불과하다. 업체당 연수생의 수가 적은 것은 추천과정에서 업체의 종업원수에 따라 연수허용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체의 규모는 대체로 적은 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1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나, 200인 이상의 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하고 있는 연수생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국에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전체 연수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제주 지역에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연수생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은 업종이나 기업규모 및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이다. 중기협외의 조사에 따르면 1996년에 연수생이 받은 총임금은 월 61만 원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약 76% 정도인데 일본의 6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¹²⁾ 물론 산업기술연수생의 숙식을 거의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식비가 포함된 것이다.

대체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형태는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내국인 근로자는 자기 집에서 통근하고 있는 데 비해 연수생은 회사 내의 기숙사 또는 간이숙소에서 기거하고 있다. 그러기에 내국인 근로자에게는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정도이지만 연수생들에게는 3식이 모두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식사제공 비용이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수생이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것이어서 비슷한 일을 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본급에 비하면 약 4분의 3이 된다. 그러나 공장 안에서 기숙을 하고 있을

<표 6> 내국인과 연수생의 임금비교

(단위 : 천원, %)

| 조사주체 | | 조사시점 | 임금지급내역(직접비용) | | | | | 간접비용 식사제공 | 총임금 |
|------|-----|------|--------------|-------------|------|-----|-----|--------------|-----|
| | | | 기본급 | 초과근무 수 당 | 기타수당 | 상여금 | 소계 | | |
| 노동부 | 연수생 | 96.7 | 301 | 228 | 55 | 27 | 610 | 106 | 716 |
| | 내국인 | | 400 | 242 | 71 | 108 | 820 | 63 | 883 |
| 중기협 | | 96.1 | 321 | 203 | 44 | - | 568 | 132 | 700 |
| 경 총 | | 96.3 | - | - | - | - | 544 | 220 | 763 |

자료: 백석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대책」,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 연구센터(1997), 61쪽에서 전제.

11) 법무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96. 3. 1.) 참조.

12) 이주호·김대일(1997), 1997. 6. 3, 6쪽.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보다 많은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초과근로수당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초과근로가 많아서 연수생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내국인 근로자보다 28%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¹³⁾

3. 精密調査의 結果

산업기술연수생이 아닌 불법취업자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이나 송금 실적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다. 물론 몇몇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들이 조사한 단편적인 자료는 있지만 조사방법과 조사시점의 차이로 효과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1996년 9월과 10월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의 20개 업체를 방문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의 대상기업이 모두 불법취업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가운데 일부는 연수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20개 기업은 모두 제조업에 속하며, 그 가운데 7개는 섬유·의류에, 10개는 기계·금속에, 나머지 3개는 종이, 플라스틱 등 기타 잡제품 제조업에 속한다. 이들 20개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는 63명으로 30인 이하가 6개, 31~50인 사이가 5개, 51~100인 사이가 6개, 그리고 100인 이상이 3개로서 모두 영세업체들이다.

업체당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평균 7.6명으로 중기협 추천 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당 평균 연수생수 4.1명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연수생의 배정에는 제한이 있으나 불법취업자의 고용은 그러한 제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평균 월 288.0시간에 달하며 그 가운데 96.2시간이 초과근로시간이다. 이들의 총근로시간은 그들 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255.7시간과 비교하면 월 32.3시간이 많은 편인데 이는 내국인 근로자보다 그만큼 초과근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많은 기업에서는 내외국인의 초과근로에 차이가 없지만 주로 기계·금속업에 속하는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보다 훨씬 많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업종별·규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20개 사의 평균 현금급여는 583.0천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식비를 합한 총임금은 706.4천 원에 이르고 있다. 현금급여나 총급여가 연수생의 그것들보다는 다소 높지만 예상보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편이다. 이들의 현금급여 또는 총급여는 내국인 근로

13) 경총, 「단순기능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1996. 3. 참조.

자의 현금급여 794.2천 원과 총급여 857.5천 원과 비교하면 각각 73.4%와 82.4%가 된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96년 6월 노동부가 전국의 185개 외국인 활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보여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현금임금 및 총임금이 내국인 노동자의 그것들에 비하여 각각 74.4%와 81.1%인 사실과 비교할 때 20개 기업의 정밀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¹⁴⁾

<표 7-1> 외국인 노동자 활용상태 정밀 조사결과 (1)

| 사 업 장 | | | | 고 용 | | | | 월 근로시간 | | | |
|-------|----|-------|-------|-----|-----|----------|-------------|--------|----------|-------|----------|
| 업체 | 지역 | 제 품 | 수출여부 | 외국인 | |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 | 내국인 | |
| | | | | 총수 | 연수생 | 불법 취업 | | 총시간 | 초과 시간 | 총시간 | 초과 시간 |
| S1 | 서울 | 컴퓨터자수 | 수출 | 12 | 12 | - | 20(16) | 234 | 50 | 234 | 50 |
| S2 | 서울 | 섬유 | 수출연관 | 3 | - | 3 | 40(15) | 226 | 50 | 226 | 50 |
| S3 | 서울 | 기계부품 | 수출연관 | 11 | 6 | 5 | 101(95) | 212 | 20 | 212 | 20 |
| S4 | 서울 | 기계부품 | 내수 | 5 | - | 5 | 57(6) | 355 | 159 | 355 | 159 |
| S5 | 서울 | 금속수저 | 내수 | 5 | 4 | 1 | 63(27) | 220 | 44 | 220 | 44 |
| S6 | 서울 | 의류 | 내수 | 6 | 2 | 4 | 40(35) | 230 | 46 | 230 | 46 |
| S7 | 서울 | 신사복 | 내수 | 12 | 12 | - | 81(50) | 249 | 57 | 236 | 44 |
| I1 | 인천 | 전선 | 내수 | 1 | - | 1 | 9(3) | 207 | 31 | 207 | 31 |
| I2 | 인천 | 전산용지 | 내수 | 9 | - | 9 | 85(5) | 350 | 166 | 350 | 166 |
| I3 | 인천 | 전자기기 | 수출연관 | 4 | - | 4 | 34(8) | 248 | 56 | 248 | 56 |
| I4 | 인천 | 플라스틱 | 내수 | 18 | 8 | 10 | 112(34) | 280 | 88 | 280 | 88 |
| K1 | 경기 | 기계 | 내수 | 12 | 12 | - | 67(34) | 316 | 100 | 255 | 39 |
| K2 | 경기 | 양말 | 내수 | 3 | - | 3 | 4(4) | 214 | 22 | 192 | 0 |
| K3 | 경기 | 기계자수 | 수출·내수 | 2 | - | 2 | 10(8) | 312 | 120 | 222 | 30 |
| K4 | 경기 | 판금·도장 | 수출연관 | 5 | - | 5 | 14(1) | 258 | 50 | 247 | 39 |
| K5 | 경기 | 염색 | 내수 | 10 | - | 10 | 75(13) | 319 | 127 | 319 | 127 |
| K6 | 경기 | 전자부품 | 수출연관 | 1 | - | 1 | 12(4) | 491 | 283 | 384 | 176 |
| K7 | 경기 | 기계 | 수출연관 | 10 | - | 10 | 190(39) | 359 | 176 | 228 | 45 |
| K8 | 경기 | 골판지상자 | 내수 | 10 | 5 | 5 | 15(2) | 259 | 75 | 223 | 39 |
| K9 | 경기 | 전자부품 | 수출연관 | 12 | - | 12 | 38(10) | 421 | 204 | 246 | 29 |
| 평 균 | | | | 7.6 | 3.1 | 4.5 | 53.4(20.5) | 288.0 | 96.2 | 255.7 | 63.9 |

14) 노동부가 1996년 6월 실시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실태조사를 집계한 것이다.

<표 7-2> 외국인 노동자 활용실태 정밀조사결과 (II)

(단위 : 천원)

| | 임 금 | | | | | | | | | | 외국인 송금비율 |
|----|-------|-------|-------|------|-------|-------|-------|-------|-------|------|-------------|
| | 외 국 인 | | | | | 내 국 인 | | | | | |
| | 총액 | 기본급 | 초과급 | 상여급 | 식대 | 총액 | 기본급 | 초과급 | 상여급 | 식대 | |
| S1 | 750 | 583 | 150 | 17 | 139 | 1,033 | 583 | 260 | 190 | 139 | 67 |
| S2 | 508 | 247 | 203 | 58 | 110 | 788 | 454 | 194 | 140 | 60 | 58 |
| S3 | 422 | 334 | 62 | 20 | 75 | 619 | 460 | 81 | 77 | 75 | 26 |
| S4 | 552 | 288 | 224 | 40 | 180 | 1,016 | 446 | 306 | 264 | 180 | 40 |
| S5 | 498 | 317 | 83 | 98 | 120 | 728 | 500 | 115 | 110 | 40 | 48 |
| S6 | 557 | 280 | 237 | 40 | 153 | 772 | 353 | 360 | 59 | 51 | 40 |
| S7 | 595 | 343 | 158 | 93 | 140 | 643 | 413 | 155 | 75 | 38 | 93 |
| I1 | 439 | 350 | 68 | 21 | 150 | 646 | 450 | 103 | 94 | 63 | 21 |
| I2 | 534 | 332 | 203 | - | 200 | 835 | 450 | 250 | 136 | 100 | 34 |
| I3 | 620 | 350 | 150 | 120 | 180 | 761 | 400 | 230 | 130 | 80 | 80 |
| I4 | 738 | 365 | 334 | 39 | 135 | 761 | 365 | 362 | 34 | 38 | 39 |
| K1 | 514 | 279 | 190 | 45 | 104 | 627 | 339 | 163 | 125 | 35 | 45 |
| K2 | 280 | 240 | 40 | - | 90 | 355 | 350 | - | 5 | - | 40 |
| K3 | 390 | 340 | 50 | - | - | 520 | 500 | - | 20 | - | 50 |
| K4 | 844 | 426 | 212 | 206 | 150 | 1,100 | 600 | 290 | 210 | 75 | 100 |
| K5 | 701 | 351 | 308 | 45 | 128 | 1,000 | 404 | 394 | 202 | 128 | 45 |
| K6 | 751 | 316 | 374 | 60 | 85 | 826 | 433 | 312 | 80 | 73 | 60 |
| K7 | 739 | 327 | 342 | 70 | 148 | 751 | 477 | 148 | 126 | 123 | 70 |
| K8 | 405 | 288 | 84 | 33 | 100 | 820 | 608 | 48 | 164 | 42 | 33 |
| K9 | 823 | 288 | 522 | 13 | 80 | 1,283 | 690 | 425 | 168 | 25 | 113 |
| 평균 | 583.0 | 332.2 | 149.7 | 51.2 | 123.4 | 794.2 | 463.8 | 204.1 | 120.5 | 63.3 | 55.4 |

20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소득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월 55.4천 원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90.5%는 자국으로 송금하거나 스스로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저축하고 있는 현금 가운데 귀국시 한국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액수도 크지 아니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금임금 가운데 80~90% 정도가 자국으로 유출되고 국내에는 10~20% 정도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IV. 海外企業進出과 外國人力活用の 效果分析을 위한 理論的 接近

1. 바그와티 - 스리니바산 模型

해외기업진출은 자국자본의 유출이며, 외국인력 도입은 외국노동의 유입이다. 따라서 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이론 가운데 국제요소이동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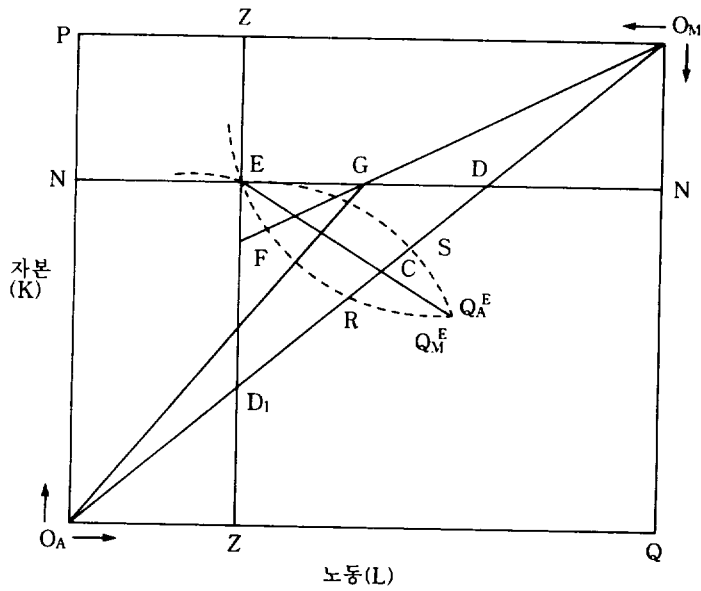
국가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되어 결국 양국의 후생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사실은 리카도 이론이나 헉서-오린의 정리 등에서 이미 정립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경우에도 자본이 풍부한 국가(capital-abundant country)와 노동이 풍부한 국가(labor-abundant country) 사이에 서로 요소의 이동이 이루어지면 양국의 후생이 증진된다고 보는 이론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왔다.

Kemp는 이미 1966년 국가간 요소이동이 교역 양국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이론화한 바 있으며 곧이어 1967년 Jones는 Kemp의 이론을 확장하였고 1983년 Brecher에 의하여 더욱 진전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진전을 바탕으로 국제간 요소이동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예를 들어 정교하게 구체화한 것이 Bhagwati-Srinivasan의 모형이다.¹⁵⁾

이들은 에지워스의 상자도를 미국과 멕시코의 2개 국이 한 재화를 생산하는 모형으로 활용한다. [그림 1] 에서 자본이 풍부한 미국의 원점을 O_A , 노동이 풍부한 멕시코의 원점을 O_M 으로 하고, 횡축에 노동(L), 종축에 자본(K)을 둘 때 양국의 등량곡선 Q_A^E 와 Q_M^E 가 만나는 E점에서 양국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E점이 계약선(contract curve) $O_A O_M$ 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파레토 효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계약선상에서 보면 미국의 생산량은 $O_A R$ 이 되며 멕시코의 생산량은 $O_M S$ 가 되고 RS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제약되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국의 손실된 생산량 또는 국민소득이 된다.

15) J. N. Bhagwati and T. N. Srinivasan(1983) pp.209~221.

[그림 1] 바그와티-스리니바산 모형도



이 상태에서 미국이 정책주체가 되고 멕시코는 아무런 정책을 펼 수 없다고 할 때 어떤 정책적 선택이 미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가상상태를 설정하여 검토한다.

가. 요소의 자유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미국이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ED'의 자본이 유출되고 ED의 노동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인 임금-자본소득비(wage-rental ratio)가 같은 상태에서 DD'선상의 C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의 생산량 또는 국민소득은 O_AR에서 O_AC로 옮겨 RC의 이득이 발생하고 멕시코는 O_MS에서 O_MC로 옮겨 CS의 이득을 보게 된다. 우선 멕시코의 노동이 ED만큼 미국에 유입되어 미국의 GDP는 O_AD가 되지만 유입된 멕시코 노동자들이 균형임금-자본소득비 EC에 의하여 CD의 소득을 얻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GDP는 O_AC(=O_AD-CD)까지 증대되고 계약선상에서는 RC의 증가로 나타난다. 또한 미국의 자본이 ED'만큼 유출되면 미국의 GDP는 O_AD'로 위축되지만 멕시코에 유출된 미국 자본이 D'C만큼 벌어오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GNP는 O_AC가 되며 계약선상에서는 RC로 나타난다.

나. 요소이동에 쿼터를 설정한 경우

미국의 자본유출을 EF에서, 그리고 멕시코의 노동력유입을 EG에서 쿼터를 설정하여 수량적으로 제한할 경우 계약선상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양국의 소득확대도 각각 RC와 CS보다 적어질 것이다. 만약 노동유입은 없고 미국의 자본유출을 유출자본의 한계수익(MR_{AK})이 자국내 한계생산(MP_{AK})과 같아지는 최적상태 EF에서 제한한다면 미국의 소득증대는 RC보다 커지며 멕시코의 소득증대는 CS보다 적어져서 미국에게 유리해진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자본유출을 자유이동 수준 ED'보다 적도록 억제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만약 자본유출이 없고 노동만 EG만큼의 최적쿼터를 설정하면 미국의 이득은 RC까지만 증대된다.

다. 요소이동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자본유출에 대하여 차별적 조세(discriminatory tax)¹⁶⁾를 부과하면 자본유출을 금지할 때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미국으로서는 [그림 1]에서 O_{AN}의 자본을 국내에서 모두 활용하면서 자본유출에 의한 소득 위축이 없이 Q_{AR}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멕시코의 노동유입에 대해서 차별적 조세를 부과하면 유입노동에 의한 소득증대 O_{AD}에서 소득누출(CD)을 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유입노동의 차별소득 전부에 대하여 차별적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최적조세(optimal tax)¹⁷⁾만을 부과하면 RC를 초과하는 미국의 소득증대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섯 가지 상태의 미국 이득을 순위매김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입노동에 완전차별적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 ② 유입노동에 최적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 ③ 자본유출에 최적조세를 부과하여 금지하는 경우
- ④ 요소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 ⑤ 노동유입을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유출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요소의

16) 차별적 조세란 유출자본이 해외에서 얻는 이득 또는 유입노동이 국내에서 얻는 이득을 전부 조세로 부과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7) 최적조세란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노동의 한계비용(MC_{ML})이 미국에서 형성하는 한계생산(MP_{AL})과 같도록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유이동을 허용하거나 노동유입을 금지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함을 보여준다.

바그와티-스리니바산의 모형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자본 및 노동이동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미국을 자본풍부국가로, 멕시코를 노동풍부국가로 바꾸어 놓으면 자본유출과 외국인력 유입을 행하는 어느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에서 O_A 에 한국을, 그리고 O_M 에 노동력이 풍부한 동아시아 등 저개발국을 두면 한국의 해외기업진출과 외국인력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要素移動의 效果

가. 자본유출 效果

바그와티-스리니바산의 모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요소이동은 각각 국민경제에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영향을 미친다. 얼핏 보면 자본의 해외유출은 국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및 수출입 등을 위축시킬 것으로 생각되어 부정적 효과만 있을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해외투자의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어 활용되면 생산, 고용, 부가가치 및 수출입 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자본유출이 초래하는 국내의 생산 및 부가가치 등의 위축은 직접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발생한 전후방 연쇄효과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전방연쇄효과(foward linkage effect)는 투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위축이 수출이나 내수 등을 연쇄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하며,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는 생산위축으로 인하여 원·부자재와 부품 등을 공급하던 연관산업들의 생산과 고용 등의 연쇄적 감축이다.

물론 해외로 유출된 자본이 종래 국내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았거나 활용될 여지가 없었던 잉여자본인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해외직접투자로 유출된 자본이 잉여자본인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해외에 투자된 자본은 이윤 등 투자수익을 얻어 국내로 도로 유입된다. 물론 투자자본의 한계효율이 낮아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되는 부가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투자자본의 유출시점과 회수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외국의 부가가치가 국내로 유입된다. 국내에 유입된 해외투자수익이 국내의 생산 등에 활용되면 이 역시 직접생산 및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후방 연쇄효과를 발휘

하여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엄격히 따지자면 유출된 자본이 초래하는 생산, 소득, 고용 등에 대한 유발효과와 회수된 투자수익의 유발효과가 같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 성격과 효과의 차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유출된 자본과 회수된 투자수익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가 같다고 가정하면 유출자본과 회수된 투자수익의 차이가 초래하는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만을 자본 유출의 효과로 보아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유출된 투자자본이 유입된 투자수익보다 많으면 국내의 부가가치가 유출된 셈이므로 생산, 수출, 소비 등이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유입된 투자수익이 유출된 투자자본보다 많으면 국내의 부가가치가 그 차만큼 증대되어 직·간접의 각종 유발효과가 발생하여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노동력 유입효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효과 역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직접효과와 간접적인 연쇄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노동력유입의 긍정적 효과는 만약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했어야 할 국내의 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었을 때 그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의하여 창출된 직·간접의 생산과 수출, 부가가치 및 고용의 증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한 업종,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생산성 등에 따라 각 부문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효과가 달라질 것이며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국인 노동자의 부족 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¹⁸⁾

노동력유입의 부정적 효과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얻은 노동소득의 유출과 유출된 소득의 파급효과(ripple effect)의 합계로 나타날 것이다. 유출된 소득의 파급효과는 그것이 국내 노동자의 소득으로 남았을 때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소비되어 유발하는 갖가지 간접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역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와 대체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18) 어수봉·권혜자(1995), 30~48쪽 참조.

V. 限界産業의 海外企業進出과 外國人力活用の 效果比較

1. 限界産業의 範圍 設定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한계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었거나 또는 개방화와 경쟁화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운 모든 산업을 한계산업이라고 규정할 때 그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대체로 섬유·의복 등 노동사용적인 경공업과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등 분류상으로는 중화학공업에 포함되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사용적인 한계산업의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기업의 업종은 광업 등 자원지향형 산업과 무역업 등 시장지향형 산업, 그리고 운수·보관업 등 서비스업들은 한계산업으로 보기 어렵다. 제조업 가운데에도 일부 시장지향형의 비한계산업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비제조업 가운데에도 한계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업종만으로 해외진출기업이 한계산업에 속하느냐를 가리기가 어렵다.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대체로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기업은 노동력지향형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다. 선진국에 진출한 기업은 대체로 비한계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기업은 그렇지 않다.

1996년만 보면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6.1%를 차지하며, 지역별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54.2%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업종과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편의상 해외직접투자의 2분의 1이 한계산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단순화하고자 한다.

2. 短期效果

가. 産業생산에 미치는 效果

1996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약 42억 달러이며 무역외수입 가운데 해외투자 수익은 약 32억 달러이다.

이 해의 투자수익을 이 해의 해외직접투자가 낳은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경제 전체에서 보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의 유출과 유입이므로 투자와 수익 사이의 시차를 무시하고 보면 그 차이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의 순수출 가운데 2분의 1이 한계산업의 해외기업진출에 의한 것으로 단순화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약 5억 달러이다.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치면 약 4,500억원이 된다.

이 액수의 투자가 순수출되었을 때 국내생산이 직·간접으로 얼마나 위축되는가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1993년 산업연관표에서 민간자본형성의 생산유발계수가 1.733이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20이다. 그러므로 4,500억 원의 자본순유출로 인하여 약 7,800억 원의 국내생산과 3,240억 원의 국내부가가가치가 위축된 셈이다.

해외기업진출이 단기적으로 국내생산과 부가가치를 위축시키는 데 비해 외국인력 활용은 국내생산의 위축을 막아준다.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임금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국내의 부가가치가 유출되므로 국내생산을 줄이는 부정적 효과도 함께 지닌다.

1996년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1만 명이며 이들이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과 동일한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고 편의상 1990년 전산업 취업계수 10억 원당 38명을 적용하면 약 55천억 원의 생산을 유지하며, 1993년 제조업 생산유발계수 2.036을 다시 적용하면 약 110천억 원의 직접 및 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보인다.¹⁹⁾

반면에 21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소득 가운데 80~90%를 자국으로 송금함에 따라 유출되는 부가가치로 인한 국내생산감축효과도 있다. 1996년 외국인 노동자의 1인당 현금임금 약 월 60만 원 가운데 월 50만 원이 송금된다고 보면 이 해에 21만 명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부가가치유출은 12천억 원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생산유발액은 약 17천억 원이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순생산유발효과는 약 93천억 원이 될 것이다.²⁰⁾

이렇게 볼 때 1996년 한계산업의 해외기업진출이 국내생산을 약 8천억 원을 위축시킨 데 비해 외국인력 활용은 약 93천억 원의 국내생산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보여서 앞에서 본 이론모형의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19) 1993년 산업연관표에는 고용 및 취업관련계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199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나 시차에 따른 가격변동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시산에 불과하다.

20) 백석현(1997)의 분석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제조원가 절감효과와 송금에 따른 소득유출효과만을 비교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해외직접투자는 그 성격과 형태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수출을 주로 하던 기업이 국내생산을 중단하고 해외진출기업에 의하여 계속 제3국에 수출하면 국내수출을 감소시킨다. 그 대신 국내에서 종래 수출을 행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수입하였다면 국내의 수입도 함께 감소시킨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한국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자본재를 도입하게 되거나 현지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계속하여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그만큼 한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해외진출기업에 의한 순수출 감소는 그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역수입효과도 발생한다.

한계산업의 해외진출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하는 비율이 앞에서 본 KTC조사나 현지방문 정밀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그 비율은 약 85% 정도가 된다. 이들 한계산업 해외진출기업이 원·부자재를 한국에 의존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KTC조사나 현지방문 정밀조사의 결과로 추정하면 80%를 다소 상회한다. 이에 비해 역수입 비율은 약 6~8%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계산업의 해외기업진출은 이들이 국내에서 행하던 수출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기는 하였지만 그대신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수출과 원·부자재의 지속적인 수출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전체 수출입을 감소시키는 정도는 15~20%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한 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 분석은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¹⁾ 외국인력 활용의 경우 국내생산 위축을 막는 것은 명백하지만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가 않다. 물론 이들이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연관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활용된다면 수출 감소를 억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입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20개 정밀조사기업 가운데 수출 또는 수출연관기업은 8개이고 나머지 12개 기업은 수출무관기업이다. 따라서 외국인력 활용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에 의한 부가가치 유출이 초래하는 수출입의 감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한계산업의 해외기업진출과 외국인력 활용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둘다 크

21) 김영찬·김정규(1997. 5.).

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국내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고용 저하와 임금 상승 억제 등의 영향을 미친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투자의 순유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용감소를 일단 고려하되 자본재 또는 원·부자재의 공급부문에 유지되는 고용은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1996년 한계산업 해외진출기업에 의한 부가가치의 순유출을 4,500억 원으로 추정할 때 1990년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의 고용유발계수의 10억 원당 77명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직접 및 간접의 고용 감축은 6만여 명이 된다. 1993년 산업연관표에는 고용유발계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99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는데 1990년과 1996년 사이의 가격변동을 고려하면 이보다 적은 고용 감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자본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에 따른 고용 증대를 제외하면 순수한 고용 감축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외국인력 활용 역시 국내고용을 감축시키고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1996년 현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21만 명 모두를 국내노동자로 대체가능한 것으로 보면 1차적으로 21만 명의 국내고용 기회를 이들이 빼앗은 셈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노동자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를 더 크게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²²⁾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노동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한계기업의 폐업을 막아서 국내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와 대체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지는 경제사정과 경기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호경기로 인력부족이 심한 시기에는 대체관계보다 보완관계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불경기에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노동자는 높은 대체관계를 보일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감축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따른 부가가치의 유출이 유발하는 2차적 고용 감축도 고려되어야 한다. 1996년 21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부가가치의 유출 12천억 원에 의한 2차적 고용 감축은 1993년 최종수요의 생산유발계수가 1.766이며, 1990년 산업연관표에서 제조업생산의

22)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고용유발계수가 10억 원당 54명이므로 약 7만 명 정도가 된다. 따라서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1996년의 총고용 감축은 약 28만 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한계산업의 해외기업 진출과 외국인력 활용은 둘다 국내고용을 감축하지만 외국인력 활용에 의한 고용 감축 28만 명이 해외기업진출에 의한 고용 감축 6만 명의 약 4~5배가 되는 셈이다.

3. 長期效果

가. 산업공동화

한계산업의 해외기업진출은 단기적으로 볼 때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키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국내의 제조업비중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이른바 산업공동화현상(deindustrialization or hollowing of industry)을 초래하게 된다.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이 그러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산업공동화에 빠져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잠재성장력이 약화되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대량실업으로 실업률은 급증하여 저성장·고실업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한때 미국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기업탈주(business run-away)로 표현하면서 산업공동화의 갖가지 부작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직 기간의 연장, 구직의 곤란 등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공장이 있던 지역사회는 공장의 폐업이나 해외진출로 황폐화되기도 한다. 정부는 각종 조세수입이 줄어든 대신 사회보장비 등 지출부담은 오히려 증대되어 고통을 받게 된다.²³⁾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말부터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량이 계속 감퇴되고 있어 산업공동화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96년 현재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GNP의 2.9%에 지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하여 해외기업진출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이들 진출기업의 설비재, 원·부자재를 한국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공동화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해외직접투자가 최근에 이를수록 급증하고 있어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해외기업진출이 산업공동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하여 외국인력 활용은 산업공동화를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두 방법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장기효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23) B. Bluestone and B. Harrison(1982), pp.49~81 참조.

나. 산업구조조정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산업구조조정이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과 기업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보다 경쟁력이 큰 산업과 기업이 주축이 되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해외기업진출은 한계산업을 해외에 진출시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국내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 이에 반하여 외국인력 활용은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두 방법의 효과도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력 활용은 국내의 한계산업이 과중하게 느끼는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인력부족을 일시적으로 메꾸어 한계산업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방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체질을 저하하고 국제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도 있다. 설사 외국인력 활용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생존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외진출의 기회도 상실한 채 소멸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외진출을 통하여 경쟁력을 찾는 기업보다 국민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계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이 단기적으로는 생산의 위축을 막아주면서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만 그 자체의 국내고용 감축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산업공동화를 심화시켜 저성장·고실업의 선진국형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한계산업의 해외기업진출은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고용의 위축을 초래하지만 산업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이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성장의 저하를 예방할 수도 있다.

VI. 要約과 結論

해외기업진출과 외국인력 활용은 둘다 한계산업의 기업들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한계상태를 벗어나려는 방안이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상이하다.

단기효과로 볼 때 해외기업진출은 국내에 투자된 부가가치를 해외에 유출함으로써 국내의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키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해외투자수익을 국내로 다시 유입시키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순유출에 따르는 생산과 고용의 감축효과를 줄이게 된다. 우리나라 한계산업의 해외기업진출은 연류이 일천하고 최근에 계속 급격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되는 부가가치가 유입되는 투자수익보다 큰 상태이어서 아직은 생산과 고용을 감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큰 형편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등의 투자수익

률이 비교적 높고 투자재원의 회수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멀지않아 투자수익의 회수가 유출되는 투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계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은 국내생산을 연명시키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는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국내의 고용에 대해서는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 자체에 의한 고용감축만이 아니라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부가가치의 유출이 유발하는 고용 감축까지 함께 고려하면 전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현단계로서는 해외기업진출과 외국인력 활용이 모두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편이어서 무시해도 좋을 듯하다.

장기효과면에서 해외기업진출은 산업구조조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산업공동화에는 부정적인 데 반하여 외국인력 활용은 그 반대이다.

이와 같은 장단기 효과를 고려할 때 어느 쪽에 더 큰 정책비중을 둘 것인가의 선택은 산업공동화의 방어와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향보다 더욱 소망스러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부가가치 유출을 막아서 국내에 투자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거나 나아가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임금, 이자, 지대 등 기업의 비용요인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이러한 소망이 쉽게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고 최근 수년간 보여준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부가가치 유출과 고용 감축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여 국내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점차 접근하고 있어서 한계기업의 부담경감 효과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규모가 지금 수준보다 늘지 않도록 하거나 오히려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하면서 이들의 임금소득이 모두 유출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바꾸고 이들의 임금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최적조세 또는 부과금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여 여성, 고령자 등 비활용 국내노동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노동자로 대체하는 고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여성이나 고령자를 바로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에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비정규 고용형태로 각 분야에서 저렴하고 용이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의하여 밀려나는 젊은 노동력이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에 찾

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한계산업의 기업들은 겨우 생존할 뿐이어서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시들시들하다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전에 투자수익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기업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다. 부산 지역의 신발산업이나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 등이 생존에 급급하다가 결국 소멸되기에 이르렀지만 일찍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세계부가가치연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활기있게 생산활동을 하면서 투자수익을 국내로 유입할 뿐 아니라 한국의 자본재와 원·부자재를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해외투자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 인력활용 보다는 해외기업진출에 더 큰 정책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IMF체제로 바뀐 상태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도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합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그 수를 급격히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 억제 및 엄격한 단속으로 국내실업자의 취업기회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수들,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1996
- 김영찬·김정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7.5.
- 김승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구조변화와 요인분석」, 『계간 KDI정책연구』, 1997.1
- 김 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산업공동화」, 『산은조사월보』, 한국산업은행, 1996.10
- 남성일 외 2인,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증대효과 분석」, 무공자료 97-4, 1997.
- 박래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경제논집』, 제16권, 한국노동경제학회, 1993.

- 박영범 외, 『외국인력의 활용과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1994.
- 박호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인사조직관리학회 발표문, 1993.
- 백석현, 『해외노동력 유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한상공회의소, 199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1995.
- 송병준,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방안-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993.
- 송병준 외 6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 오호일·박종운,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조사연구자료 97-4, 한국은행, 1997.
- Bhagwati J.N. & T. N. Srinivasan, “On The Choice between Capital and Labour Mob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4,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83.
- Bluestone B. & B. Harrison, *The D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2.
- Campbell D. & A. Parisotto, “The Global Value Chain Concept in Relation to the Institute’s Programme of Wor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Geneva: ILO, 1995. 5.
- Caves R.E. & J. A. Frankel and R.W. Jones, *World Trade and Payments*, 7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6.
- Dunning J.H., *Explai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London: Unwin and Hyman, 1988.
- ,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92.
- Gereffi G., “Global Commodity Chains and Third World Developme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Geneva:ILO 1995. 5.
- 關口末夫·田中宏, 『海外直接投資と日本經濟』, 東洋經濟新聞社, 1996.
- 小島清, 『海外直接投資のマクロ分析』, 文眞堂, 1989.
- 後藤純一, 『外國人労働者と日本經濟』, 有斐閣, 1993.
- 烏田晴雄, 『外國人労働問題の解決策』, 東洋經濟新聞社, 1993.